



정병진 목사 '불법체류 외국인 수용자 상담일지'

“교회 갈때도 수갑 채워”

아파도 병원 못가고 약만 먹어 고국선 '사망' 처리...갈 곳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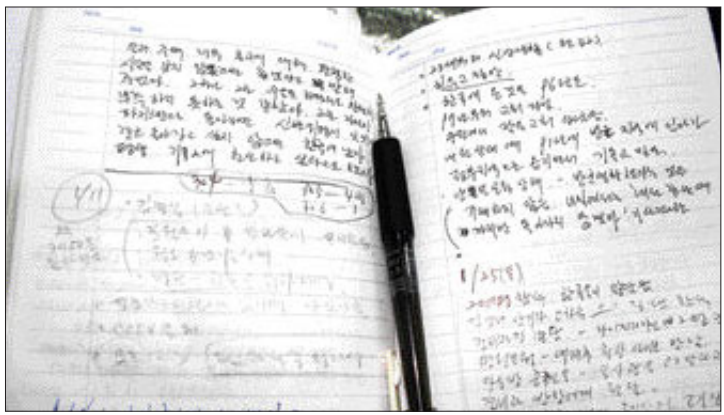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상승적인 임금체불과 억류, 강제송환은 한국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적개심으로 바꿔 놓았다.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대책위'

원회' 정병진(37·순천교회 목사·사진) 공동대책위원장이 12일 공개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자 상담일지'는 서럽고 한 많은 외국인의 실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외국인 수용자들은 답답한 철창 속에 갇힌 채 갖은 인권 침해에 시달렸다. 교회에 갈 때도 수갑을 채웠고,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는 엄두도 못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아 험거운 노동을 했지만, 임금은 체불되기 일쑤였다. 모국(母國)에서는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자신들을 사랑한 것으로 처리해버려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였다.

정 목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매주 1차례씩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자와 상담을 해왔다. 그해 11월12일부터는 상담 내용을 꼼꼼히 자신의 수첩에 메모했고, 지난달 30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100여 명과 직·간접 상담을 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정 목사의 상담일지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상담일지 내용

▲2004년 11월12일- 예배 후 이○○, 박○○씨 면회함. 장기수감자 건강 악화, 보호소 인권문제 상담. 면회도중 심사와 직원에 뒤에서 앉아 면담내용을 적으며 감시해 강력 항의했음. (이들은) 문제삼을 테면 삼으라며 오히려 큰소리쳤음.
▲11월16일-박○○씨에게 전화음. 처음 보호소에 들어올 때 이름을 막론하고 팬티까지 내리게 해 몸을 수색한다고 함.→인권 문의.
▲12월5일-이○○씨 서울로 보내달라 요구. 서울에 있는 집 처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한국 온 지 13년 돼 중국말도 가물다물. 올해 (임금)만 받을 계획. (체불임금)이 1천만원이 되지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려 한다.
▲2005년 1월11일-신축건물에서 첫 예배 드림.(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5년 1월 현재의 화장동 청사로 이전했다) 동○○,영○○,○3명 (예배) 참석. 원래 예배 희망자는 15명이었으나, 계호상의 문제로 수갑을 채워 (예배당)까지 이동한다고 하자 많은 사람이 예배를 거부했음.
▲6월29일- 박○○(여·중국)

2002년 3월24일 결혼해 (한국으로) 들어옴. (한국인 남편의) 옛 부인은 암으로 죽었다고 함. (한국인 남편)의 아이는 15세, 장애인. (한 달에) 생활비 20만원 줌.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 (불법 체류자로) 몰렸음.
▲9월15일-이○○(52년생). 일주일에 세 번씩 진료를 받지만 두통이 심함. 관절이 심하게 아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약만 주고 있음. 신발을 서로 같이 신기 때문에 무좀이 많음. (임금) 300만원 체불된 것은 중국 간 다음 20만원씩 보내 준다고 약속받았음.
▲9월20일-일○○(우즈벱). 손을 다쳤음→마산 출입국관리소에 있을 때 뒤로 해서 수갑을 채웠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손이 부러졌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국가인권위에서 답변받았다고 함.
이○○(중국)- 술 먹다 암심 품은 한국인에게 맥주병으로 얻어맞고 119에 가서 치료받고 파출소에

넘겨져 결국 불참됨. 북경에서 딸애가 공부하는데 학비 좀 대볼까 해서 (한국에서) 일했음. 체불임금 300만원.
▲2006년 7월18일-김○○(47). 한국에 온 지 20년 됐음. 미국에서 고깃배 타고 들어왔음. 집에는 사망 신고돼 있어 돌아갈 수 없음.
▲12월7일-호○○. (한국에) 벌금 300만원 내야함. 신고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전북 S대학 국어국문과 전공 유학생.
▲2007년 1월11일-김○○(조선족). 오후 3시50분 전화받음. 직원들이 땅바닥에 내리쳤음. 침도 못 넘기는 상태. 병원 치료를 원함. CCTV 문제로 제지 과정 중 찰과상.(김씨는 이번 참사시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월16일-바키야○○(스리랑카) 아○○(파키스탄). 힌두교 집안. 내전상태 때 91년에 반군지역에 있다가 정부 지역으로 옮김. 난민 신청 상태.
▲1월25일-나이제리아인 2명 면회 요청. 예배 후 철창 사이로 만났. 다른 방 중국인들은 식사를 더 달라고 요구.



유가족들 “사후 처리라도 빨리”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12일 청사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일한 사후처리를 비난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숨진 진청타씨의 형 진청타씨(61·중국 옌벤씨 등 유족들은 “경찰이나 법무부 등은 우리에게 사망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곳에 왔다”며 “한국정부가 다른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들의 내한(來韓)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최장기 수용자 이경환씨

“직원 목인 규율 없는 생활이禍 불러”

“너무 자유스러웠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최장기 수용자로 참사 현장에서 살아난 이경환(45·조선족·중국 지린성)씨는 기상·취침·운동·식사 등 규율이 지켜지지 않았던 생활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이후 출근 여수 사무소에 억류됐다가 화재 후 11일 밤 청주보호소로 이감됐다. 청주에서 만난 그에 따르면 여

수에 수용된 외국인들은 직원들의 목인 아래 방만한 생활을 했다. 특별한 일거리도 없고,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사무소 측은 또 운동장 대신 건물 옥상만 개방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94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밀입국했다가 추방당했다. 이듬해 여권을 위조해 다시 한국에 들어와 대리석 시공일을 하다 2005년 11월 완도에서 적발돼 여수로 이송됐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1천800여만원의 밀린 임금을 받지 전까지는 한국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다. 화재가 발생한 304호실의 건너편(303호)에 있던 이씨는 방화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병식씨가 평소에도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전했다. 수감된 다음날엔 CCTV에 치약을 묻혀 가렸다가 독방에 감금되자 문을 발로 걷어차 발에 부상을 입었으며,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자도 떳떳하지 못하지만, 체부자들에게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뤄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면회실을 떠났다. /청주=이승배기자 lsb54@

가혹 행위·시설구조 문제점 등 밝힌다

인권위, 여수출입국사무소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에 대해 시설 구조 문제점과 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는 12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의 원인과 ▲시설 구조의 문제점 ▲인권 침해 여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두

차레에 걸쳐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지만, 긴급한 의료조치를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5월에는 수용자 원모(54)씨 등 2명이 ‘식사의 질이 형편없고 방이 너무 비좁으며 한 번도 운동을 한 적이 없거나 직원들이 전기방망이로 수용자들을 위협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외국인 보

호 시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루에 한 차례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외 및 실내 운동장 개방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난 2005년 7월에는 중국인 이모씨(41)가 ‘다리가 아파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외부진료 등 의료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출국할 것만을 강요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053) 김장동



평중선도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점!
평중선도서 400만 권에 10% 할인!
수원선도서 피오리
문의: 062-367-9000

‘노래방 강도’ 손님들이 격되
○12일 새벽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D노래방 앞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노래방 업주 L(여·48)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로 돌변.
○L씨는 경찰에서 “손님 이모(39)씨 등 2명을 배웅하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던 중 이 남자가 갑자기 머리를 낚아채 위협을 느껴 고향을 질렀다”며 “강도는 175~178cm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이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아이보리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
○L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이씨 등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든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얼굴이 찢겨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범인이 현장에 흘린 모자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인근 모텔·찜질방·PC방 등을 대상으로 범인을 추적 중.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